

Morning Meeting Brief

Macro

[Fixed Income] 1월 금통위, 기준금리 25bp 인하 전망

- 1월 금통위 기준금리 3.00%에서 2.75%로 25bp 인하 전망. 3회 연속 인하
- 정상화 목적에 더한 성장 견인 및 경기 부양 목적의 금리 인하
- F4 가운데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창용 총재. 1월 인하 시그널 평가

공동락, Dongrak.kong@daishin.com

Strategy

[대일리 시장] 3 거래일 연속 저가매수세 유입

- KOSPI 3거래일 연속 상승했지만, 2,500선 안착에 실패. 단기 급반등에 따른 과열 해소, 매물소화 국면 판단
- 트럼프 동맹국 통한 해군력 강화, 중국 견제 의지 표명으로 한화오션을 필두로 조선, 방산업종 강세
- CES2025에서 엔비디아 신제품 공개. GPDDR7 메모리 탑재,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제품 채택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 반전

이경민, Kyungmin.lee@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4Q24 Preview] HMM: 운임 강세로 깜짝 실적 예상

- HMM의 2024년 4분기 영업이익 9,088억원으로 깜짝 실적 기대
- 2024년 4분기 컨테이너 운임이 예상 외로 견고한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
- 1월말 트럼프 취임, 미 동부 항만의 파업 및 ILA와 USMX의 협상이 변수

양지환, Jihwan.yang@daishin.com

[4Q24 Preview] 팬오션: 부진한 시장 영향 불가피

- 2024년 4분기 영업이익 928억원으로 시장 기대치 하회 전망
- 10월 중순 이후 수요 부진에 따른 건화물 시장 악화에 따른 영향 때문
- 25년 2월까지 BDI 1천p 내외 예상. 밸류에이션 매력 있지만 모멘텀 부족

양지환, Jihwan.yang@daishin.com

[4Q24 Preview] 은행업: 배당정책 이상 없음

- 금융지주 4분기 순이익 Q둔화, P하락으로 컨센 소폭 하회 예상
- 실적보다 시장의 관심은 연말 CET1비율, 하락하나 배당정책 이상 無
- 자본증가+RWA관리+금융당국 RWA 기준 완화로 1분기 정상화 전망

박혜진, Hyejin.park@daishin.com

[4Q24 Preview]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쉬운 고환율 수혜, 25년을 위한 준비

- 4Q24 연결 매출 1.19조원(+11.3%yoy), 영업이익 2,856억원(-18.4%yoy)
- 25년 4공장 가동률 상승 및 바이오시밀러 신제품 출시로 실적 성장 전망
- 25년 미 생물보안법 입법 가능성 여전히 유효

이희영, Heeyoung.lee@daishin.com

Fixed Income

Economist & Fixed Income Strategist 공동락
dongrak.kong@daishin.com

1월 금통위, 기준금리 25bp 인하 전망

- 1월 금통위 기준금리 3.00%에서 2.75%로 25bp 인하 전망. 3회 연속 인하
- 정상화 목적에 더한 성장 견인 및 경기 부양 목적의 금리 인하
- F4 가운데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창용 총재. 1월 인하 시그널 평가

25년 1월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3.00%에서 2.75%로 25bp 인하 전망

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3.00%에서 2.75%로 0.25% 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전망한다.

높아진 경기 하방 위험, 정치적 불확실성 요인에 따른 정책 부재 리스크 등을 고려해 통화당국이 1월에도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상반기 적극적인 재정 투입에 따른 재정 정책과의 정책 조합(policy mix)에 대한 가능성도 이번 인하 전망에 함께 반영됐다.

한편 이번 기준금리 인하 이후 2분기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이뤄져 올해 한국의 최종금리 수준은 2.5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10월 정상화 관점에서의 인하에 더한 '경기 부양' 목적

지난해 10월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이후 고(高)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높아진 기준금리를 정상화한다는 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개시했다. 앞서 9월 미국 연준(Fed) 역시 '빅컷(50bp)'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개시한 이후다.

하지만 미국은 12월까지 3회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한 이후 일종의 속도조절 차원에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의 멈춤을 시사했다. 이에 당사는 미국의 경우 그간 급하게 진행됐던 정상화 관점에서의 인하가 중단 모드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올해 예상되는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 4회에서 3회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초 자체가 보다 강력하게 부각되는 국면을 예상한다. 미국과 달리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정상화 성격 이외의 경기 부양적인 목적 역시 향후 한은의 정책 행보에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다.

F4에서 주도적인 한국은행, 1월 인하 전망의 또 다른 논거

당사는 이처럼 기준금리 인하의 성격이나 목적에 정상화에 더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이 추가됐다는 사실과 함께 정치적 불확실성 요인에 따른 정책 부재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관점에서도 금리 인하가 준비되고 있다는 견해다. 또한 이 같은 정책 부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 대한 시사가 직접 통화 당국자의 발언을 통해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공개한 신년사를 통해 “전례없이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통화정책은 상황 변화에 맞추어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용될 필요가 있다”라며 “향후 통화정책은 입수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 양상과 그에 따른 경제 흐름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데일리 시황]

3거래일 연속 저가매수세 유입

- 3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 유입, 수급 분위기 반전 가능성
- 트럼프 日, 동맹국과 조선업 협력, 미 해군 MRO 수주 모멘텀 유입 기대감
- CES2025, 젠슨황 엔비디아 CEO 연설,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 납품 불발?

3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 유입

코스피 외국인 저가매수세 이어지며 3거래일 연속 상승. 기관은 장중 순매도 전환하였으나, 수급 분위기 반등

미국증시는 트럼프의 관세관련 발언으로 등락 있었던 가운데 다우존스지수는 하락하며 혼조세

미국 풀림현상 완화. 불안요소 선반영, 저평가 되어있던 KOSPI로 수급 유입 가능성
낙폭과대/저평가주 투자가 어려운 점은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로 저평가 해소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 재평가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음

트럼프 日, 동맹국과 조선업 협력

트럼프가 동맹국을 통해 해군력을 강화, 중국 견제 의지를 표명하며 미 해군 MRO 사업에 진출한 한화오션을 필두로 조선, 방산업종 강세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에서 해군력을 통한 지정학적 견제는 필수불가결. 해군전력 협력 및 미국의 LNG 수출 움직임 등 차기 행정부 정책 모멘텀 수혜가능

조선주 및 함정 MRO 시 부품 및 무기체계 납품하는 기자재, 방산업종 주목

관련종목: 한화오션(+12.60%), HD한국조선해양(+2.67%), HD현대마린솔루션(+6.50%), 한화시스템(+4.88%), 한화에어로스페이스(+4.10%)

CES2025, 젠슨황 엔비디아 CEO 연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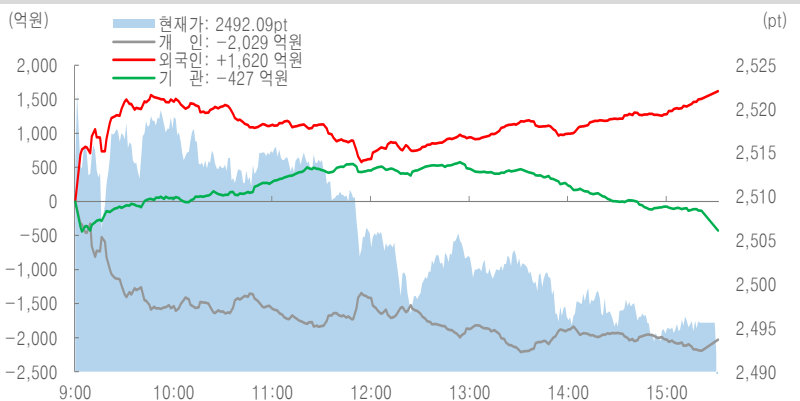
젠슨황 CEO의 기조연설 중 AI PC용 차세대 시리즈인 블랙웰 기반의 지포스 RTX50 신제품 공개

GPDDR7 메모리 탑재,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제품이 채택된 것으로 확인되며, 메모리반도체 경쟁관계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전환, 코스피 하락 견인

한편, 내일(8일) 삼성전자의 잠정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 유입 또한 상존

관련종목: 삼성전자(-0.89%), SK하이닉스(-2.40%)

CES2025 3 대 주요주제 - AI,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기술 혁신



자료: CES, CT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팬오션 (028670)

양지환 jihwan.yang@daishin.com
이지니 ji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5,000

유지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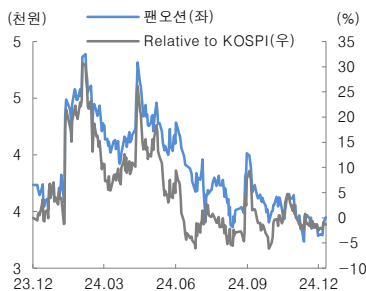
3,390

(25.01.07)

운송업종

KOSPI	2,492.10
시가총액	1,812십억원
시가총액변동	0.08%
자본금(보통주)	535십억원
52주 최고/최저	4,890원 / 3,235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69억원
외국인지분율	13.82%
주요주주	하림지주 외 13 인 54.92% 국민연금공단 6.55%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0.7	-9.2	-16.5	-7.0
상대수익률	-1.8	-4.9	-4.1	-3.8



부진한 시황 영향 불가피

- 2024년 4분기 영업이익 928억원으로 시장 기대치 하회 전망
- 10월 중순 이후 수요 부진에 따른 건화물 시황 악화에 따른 영향 때문
- 25년 2월까지 BDI 1천p 내외 예상. 밸류에이션 매력 있지만 모멘텀 부족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5,000원 유지

팬오션의 2024년 4분기 실적은 우호적 환율 및 신조 LNG 인도에도 불구하고, 건화물 및 탱커 시황 하락으로 당사 및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함

2024년 4분기 평균 BDI는 1,427p(-29.8% yoy, -23.6% qoq) 수준으로 전년동기 및 전분기 대비 20% 이상 하락하는 부진한 시황을 기록함. 특히 10월 중순 이후 BDI 하락세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진행. 이유는 1)중국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철광석 수요 부진, 2)예년보다 따뜻한 기온으로 인한 난방용 석탄 수요 부진, 3)인도 및 중국의 석탄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입 물량 감소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함

2025년 신년 들어서면서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Cape선형의 용선료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Cape를 제외한 선형의 용선료는 부진한 상황임. 2025년 2월까지 시황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함

2024년 4분기 매출액 1조 1,758억원, 영업이익 928억원으로 예상

팬오션의 2024년 4분기 영업이익은 928억원으로 당사의 직전 추정 및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전망. 건화물 및 탱커 시황 악화와 유형자산 손상 차손 반영 때문

사업부문별(증감은 yoy) [건화물] 매출액 7,533억원(+18.5%), 영업이익 467억원(+5.4%), [컨테이너] 매출액 991억원(+14.1%), 영업이익 83억원(흑전), [탱커] 매출액 974억원(+11.2%), 영업이익 302억원, [LNG] 매출액 185억원(+11.5%), 영업이익 81억원(74.8%)로 추정. 4분기 운영 선대는 286척(건화물 166척) 예상

(단위: 십억원 %)

구분	4Q23	3Q24	4Q24(F)				1Q25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1,028	1,277	1,180	1,176	14.4	-7.9	1,163	1,077	10.4	-8.4
영업이익	69	128	102	93	35.1	-27.5	113	100	1.7	7.6
순이익	15	131	56	46	200.6	-64.5	80	75	23.8	61.1

자료: 팬오션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2A	2023A	2024F	2025F	2026F
매출액	6,420	4,361	4,661	4,811	4,970
영업이익	790	386	454	469	566
세전순이익	688	248	352	374	473
총당기순이익	677	245	347	368	467
지배지분순이익	677	245	347	368	467
EPS	1,267	458	650	689	873
PER	4.5	8.1	5.2	4.9	3.8
BPS	8,404	8,817	9,382	9,921	10,615
PBR	0.7	0.4	0.4	0.3	0.3
ROE	16.7	5.3	7.1	7.1	8.5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팬오션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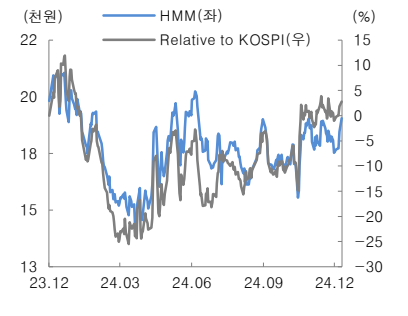
HMM (011200)

양지환 jhwan.yang@daishin.com
이지니 jinilee@daishin.com

투자의견 **Marketperform**
시장수익률,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0,000**
유지
현재주가 **18,870**
(25.01.07)
운송업종

KOSPI	2,492.10
시가총액	16,625십억원
시가총액변동	0.77%
자본금(보통주)	4,405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0,700원 / 14,55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54억원
외국인지분율	9.28%
주요주주	한국산업은행 33.73% 한국해양진흥공사 33.32%

주기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4.8	10.7	-2.6	-8.2
상대수익률	2.1	16.0	11.9	-5.0



운임 강세로 깜짝 실적 예상

- HMM의 2024년 4분기 영업이익 9,088억원으로 깜짝 실적 기대
- 2024년 4분기 컨테이너 운임이 예상 외로 견고한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
- 1월말 트럼프 취임, 미 동부 항만의 파업 및 ILA와 USMX의 협상이 변수

투자의견 시장수익률, 목표주가 20,000원 유지

HMM의 2024년 4분기 실적은 컨테이너 운임 강세로 시장 및 당사의 전망을 상회하는 깜짝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2024년 4분기 평균 SCFI는 2,265p(+108% yoy, -26.9% qoq)로 당사의 직전 전망인 2,123p를 6.7% 상회. 컨테이너 운임 강세는 1)10월말~11월초 유럽 항로에서의 선사들의 공급 조절 및 GRI, 2)12월 중순부터 미주 항로의 GRI를 앞둔 조기 선적 수요 증가에 따른 북미 항로의 물동량 증가, 3)1월 미 동부 항만의 파업을 우려한 선제적 물량 등의 영향으로 미주 항로 운임 상승하였기 때문

25년 1월에도 설 연휴를 앞둔 선적 물량 증가와 주요 선사들의 동부 항만 파업 시 할증료 부과를 예고로 미주 항로의 운임 강세가 이어지고 있음. 트럼프 취임과 설 연휴, 그리고 ILA와 USMX(United State Maritime Alliance)의 협상이 당분간 컨테이너 운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2024년 4분기 매출액 2.9조원, 영업이익 9,088억원으로 깜짝 실적 기대

24년 4분기 HMM의 실적은 매출액 2조 9,369억원(+42.4% yoy), 영업이익 9,088억원(+2,045.4% yoy)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깜짝 실적 예상. 10월말~11월 유럽 운임, 12월 미주 운임 상승으로 컨테이너 운임이 예상을 상회하였고, 달러강세(원화약세)로 인한 환율 상승효과도 깜짝 실적에 기여

2024년 4분기 HMM의 컨테이너사업부문은 매출액 1조 8,279억원(+43.1% yoy), 영업이익 9,045억원(+7,845% yoy)으로 추정. 4분기 동사의 평균 컨테이너운임은 \$1,980/TEU(+45.7% yoy, -16.5% qoq), 컨테이너수송량은 923천TEU(-1.8% yoy)로 예상 (단위: 십억원 %)

구분	4Q23	3Q24	4Q24(F)				1Q25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2,063	3,552	2,756	2,937	42.4	-17.3	2,798	2,578	10.6	-12.2
영업이익	42	1,461	759	909	2,045.4	-37.8	707	520	27.6	-42.8
순이익	263	1,738	688	834	217.0	-52.1	725	593	22.2	-28.9

자료: HMM, Fr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2A	2023A	2024F	2025F	2026F
매출액	18,583	8,401	11,482	10,160	8,776
영업이익	9,949	585	3,422	1,843	968
세전순이익	10,215	1,054	3,845	2,296	1,438
총당기순이익	10,117	969	3,718	2,151	1,359
지배지분순이익	10,117	969	3,718	2,151	1,359
EPS	20,687	1,829	4,969	2,214	1,326
PER	0.9	10.7	3.6	8.3	13.9
BPS	42,490	40,483	33,928	28,821	29,614
PBR	0.5	0.5	0.6	0.7	0.6
ROE	65.0	4.6	15.9	8.1	4.7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HMM,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은행업

박혜진

hyejin.park@daishin.com

투자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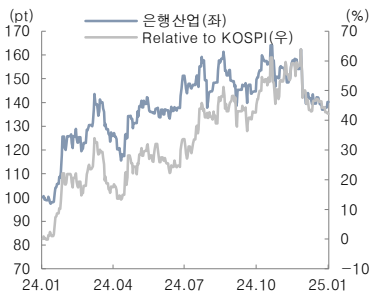
Overweight

비중확대, 유지

Rating & Target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주가
KB금융(★)	Buy	112,000원
카카오뱅크	Buy	30,000원
신한지주	Buy	75,000원
하나금융지주	Buy	87,000원
우리금융지주(★)	Buy	20,000원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8%	-6.3%	-5.3%	40.2%
상대수익률	-5.2%	-2.1%	8.4%	42.2%



배당정책 이상 없음

- 금융지주 4분기 순이익 Q둔화, P하락으로 컨센 소폭 하회 예상
- 실적보다 시장의 관심은 연말 CET1비율, 하락하나 배당정책 이상 無
- 자본증가+RWA관리+금융당국 RWA 기준 완화로 1분기 정상화 전망

금융지주 4사 합산 4Q24 순이익 2.3조원, 컨센서스 소폭 하회 전망

4분기 주요 금융지주 순이익은 컨센서스 소폭 하회할 가능성 높음. 3분기 가계대출 성장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4분기 여신성장 속도조절에 들어갔고(국민, 신한 플렛/ 하나, 우리 역성장, QoQ기준), 기준금리 인하로 마진도 하락하기 때문. 또한 반기평가 대체자산 평가손실도 일부 발생할 전망. 특히나 4분기 관건은 환율. 금융지주 4사 민감도는 10원당 0.6bp~3bp 범위. 3분기 대비 환율이 150원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CET1비율이 9bp에서 최대 45bp까지 하락할 수 있음. KB금융을 제외하고 CET1비율 13% 사수가 쉽지 않은 상황. 다만 RWA관리에 따라 개선 요인도 존재하므로 12월말 기준 커버리지 금융지주 CET1비율은 KB금융 13.5%, 신한지주 13%, 하나금융지주 12.9%, 우리금융지주 11.8% 각각 예상

RWA관리와 이익잉여금 증가로 '25년 1분기 CET1비율은 4대 금융지주 모두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기 공시한 자본정책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 또한 금융당국이 지난 12월 19일 환율 상승에 따른 은행권의 RWA부담 경감 조치를 발표한 바 이에 따른 개선 효과도 있을 것. 다만 4분기중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 경감조치는 아직 세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 내년 상반기 중에나 반영할 수 있을 전망

기준금리 인하에도 마진 선방, 소상공인 지원대책 영향 크지 않을 듯

한국은행은 4분기에만 2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하, 마진 하락이 불가피한데 당장 4분기부터 영향은 제한적. 오히려 4분기 대출 성장 속도조절로 신규취급액 기준 마진 스프레드는 확대되는 양상. 따라서 NIM하락이 예상보다 더뎠으며 하나은행은 정기예금 35% 물량이 리파이낸싱되면서 오히려 마진이 상승. 신한은행은 시금고 등 기관성 자금이 많은 특성상 연말 예치금 감소하며 NIM하락폭 가장 컸음. 국민은행, 우리은행은 2~3bp 하락 전망

정부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 언론에 발표된 은행권 부담 규모는 연간 6,500억원씩 3년간 총 2조원 가량. 지난해 은행권 전체가 부담한 민생금융지원금이 2조원에 육박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조치는 총 3년에 걸쳐 2조원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 조치가 없다면 부담은 훨씬 경감. 또한 캐시백이 아닌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완화 등의 방식으로 지원이 예상되어 일시 비용인식이 아닌 마진, 기타영업비용 등으로 반영될 전망. 작년에는 기타영업비용으로 은행 당 3,000억원 내외를 일시에 인식하였음

KB금융, 우리금융지주 최선호주 유지

국내 내홍으로 최근 고점 대비 은행주는 -20%가량 하락. 대내외 큰 충격에도 자본비율 충분한 여유가 있는 KB금융이 가장 안전, 우리금융지주는 최근 종합검사가 종료, 결과 곧 발표될 예정인데 보험사 인수에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하여 비은행 계열사 라인업 강화로 이익 증가폭 가장 클 것(첫페이지 계속)

삼성바이오 로직스 (207940)

이희영

heeyoung.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300,000

유지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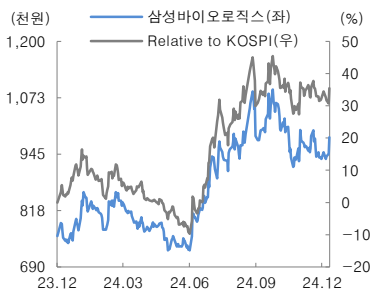
983,000

(25.01.07)

제약업종

KOSPI	2492.1
시가총액	69,964삼억원
시가총액비중	3.26%
자본금(보통주)	178삼억원
52주 최고/최저	1,091,000원 / 727,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001억원
외국인지분율	13.40%
주요주주	삼성물산 외 3 인 74.35% 국민연금공단 6.68%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2	-1.8	22.4	30.0
상대수익률	-0.4	2.9	40.6	34.5



아쉬운 고회환을 수혜, 25년을 위한 준비

- 4Q24 연결 매출 1,190조원(+11.3%yoy), 영업이익 2,856억원(-18.4%yoy)
- 25년 4공장 가동률 상승 및 바이오시밀러 신제품 출시로 실적 성장 전망
- 25년 미 생물보안법 입법 가능성 여전히 유효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300,000원 유지

목표주가는 SOTP 방식으로 산출, 영업가치는 24~33년 DCF(현금흐름할인) 밸류 에이션 방식을 적용하여 90.5조원 추정 (영구성장률 2.2%, WACC 5.7%). 총 기업 가치는 보유지분 가치(삼성바이오에피스) 3.3조원을 포함해 93.1조원으로 산정.

4Q24 Preview: 아쉬운 환율 효과, 25년을 위한 준비

[4Q24 연결] 매출액 1조 1,947억원(+11.3% yoy), 영업이익 2,856억원 (-18.4% yoy), OPM 23.9%, [별도] 매출액 9,461억원(+14.3% yoy), 영업이익 2,878억원(-13.8% yoy), OPM 30.4%, 4분기 매출은 컨센서스 부합 전망, 환율이 높았던 12월 대비 10~11월에 매출 인식이 집중되어 고회환 효과 적었음. 영업이익은 하기 이유로 비용 증가하여 컨센서스 소폭 하회 전망, 1) 25년 환율 및 신규 설비 가동에 따른 불확실성 선반영, 2) 4공장 풀가동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다만 25년에는 4공장 가동률이 본격 인식되며 이익 개선 기대됨

[삼성바이오에피스] 매출액 2,896억원(+0.2% yoy), 영업이익 939억원(+20.0% yoy), OPM 32.4% 전망. 1) 우호적인 환율, 2) 아이리야bs(오피비즈) 유럽 EMA 허가에 따른 마일스톤 수령으로 호실적 전망. 25년에는 2,500억원 가량의 마일스톤이 부재하나, 바이오시밀러 기존 제품 매출 확대 및 신제품(스텔라라bs) 미국 출시에 따라 연간 실적 성장이 기대됨

생물보안법: 25년 입법 가능성 여전히 유효

미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은 12월 입법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연내 입법이 불발되었음. 그러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생물보안법 연내 입법을 긍정적으로 전망. Wuxi Biologics, Wuxi Apptec이 이전 주가 레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24년 12월 Wuxi Apptec이 CGT(세포유전자 치료제) 사업부를 미국 사모펀드에 매각한데 이어서, 25년 1월 Wuxi Biologics는 아일랜드에 위치한 백신 제조 시설을 Merck에 매각하며 생물보안법 입법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임. 또한 동사는 고객사들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미-중 분쟁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으며, 논의중인 수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올해 생물보안법 입법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할 전망

(단위: 삼억원 %)

구분	4Q23	3Q24	4Q24(F)		4Q24(F)			1Q25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1,074	1,187	1,296	1,195	11.3	0.6	1,246	1,228	29.7	2.8
영업이익	350	339	320	286	-18.4	-15.6	308	370	67.3	29.6
순이익	291	264	242	227	-21.7	-13.9	210	274	53.0	57.4

자료: 삼성바이오로직스, Fr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